

위법·졸속 방문진 이사 선임, 원천 무효다!!

지난달 31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은 마치 비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도 하지 않고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혔고, 동시에 극우 성향의 판사 출신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방통위는 오전 11시에 취임식을 진행한 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위한 회의 일정을 오후 2시로 예고했다. 그러다 '오후 2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회의가 없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오후 5시에 이진숙, 김태규 2명만으로 회의를 열고 KBS와 방문진의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다. KBS 이사 지원자 53명,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에 대한 심의는 단 1시간 남짓, 이진숙 임명부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시간에 불과했다. 총책 윤석열, 행동대장 이진숙이 밀어붙인 MBC 장악 쿠데타였다.

MBC 장악 위한 폭주...법과 절차 모두 위법 투성

MBC 장악을 위한 이 날의 무리수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위법을 수반했다. 먼저 5인 합의제로 구성해야 할 방통위의 설립 취지 등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을 밀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의결한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면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고, KBS 이사 교체, YTN 민영화 등 굵직한 사안들을 밀어붙였다.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의 비정상적 구성을 심분 활용해 속원이었던 방문진 이사 선임까지 강행했지만, 이는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는 이진숙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인이 심의해 각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진숙 선임 직후,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일부 인사는 이진숙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진숙이 MBC 재직시절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노조탄압에 앞장섰으며, 인사청문회 등에서 MBC와 언론노조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을 밝혔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방통위법 14조 3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척 사유가 있는 이진숙이 빠져야 해 남은 1명만으로는 기피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진숙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피신청 남용'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각하해버린 것이다.

방통위는 또 과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서 진행했던 면접 심사 등도 하지 않았고, 결격사유 점검 차원에서 필수적인 지원자의 정당 가입 여부 확인 등도 완료하지 않았다. 80명이 넘는 지원자 중 후보자를 추리고, 이사진을 결정하는 과정을 단 1시간 여 만에 해치웠다는 건 말 그대로 날림, 졸속이었다는 방증이며, 이는 지원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인 동시에 방문진과 MBC 그리고 MBC 구성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고 상태였던 방통위가 미리 내정자를 추렸다면 절차상 위법이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낙점한 거라면 이 역시 위법이다. 여기에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운영규칙을 위반한 점,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 선임 절차의 구체적 일정 등을 진행한 점 등 모든 과정이 위법으로 점철됐다.

집행정지 곧 결정...MBC 장악 시도 막아내야

조합은 그동안 방통위의 위법적인 MBC 장악 시도에 대해 하나하나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달 1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해온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4명에 대해 공수처 고발을 진행한 바 있고, 지난주에는 이진숙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이진숙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 등을 고려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보조 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주부터 위법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고, MBC 구성원을 한 명, 한 명이 분노를 담아 적어낸 탄원서를 모아 곧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문진 이사 임기가 오는 13일에 시작되는 만큼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은 12일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직후부터 집요하다 못해 광적으로 MBC 장악에 집착해왔다. 일국의 방송-통신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로지 공영방송, 특히 MBC 장악을 위한 앞잡이로 채웠다. 이진숙의 실체를 두 눈으로 생생히 목도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내 역시 한계에 이르고 있다. 조합은 윤석열 정권의 MBC 침탈 기도와 적폐들의 집단 준동에 맞서, MBC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일터이자 유일하게 남은 공영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이진숙 탄핵에 찬성하십니까?
- 정권의 방송장악을 규탄하십니까?
- MBC의 정치적 독립에 찬성하십니까?

그렇다면!

8월 7일 오전 11시 20분
MBC 1층 로비

위원장의 편지 함께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권재홍. 영화 '공범자들'의 주인공들이 '이진숙 청문회'에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법 긴 시간이 흘렀지만, 반성과 사죄는 없었습니다. 안하무인의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이진숙은 더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극도의 혐오는 그대로였고, '극우적 인식'은 더 강해졌습니다. 엄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범자들'이 다시 물러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대로, 피디수첩 피디들을 내쫓고, 라디오 진행자들을 내쫓았던 윤길용 전 시사교양국장, 이우용 전 라디오본부장이 방문진 이사에 임명됐습니다. MBC 민영화를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던 교수에, 조선일보 기자 출신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공안검사 출신이 두 명이나 임명됐습니다. 저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뚜렷이 드러납니다. 정권의 편에서 봐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정무적 고려나 국민 여론은 전혀 안중에 없다는 게 더 화가 납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싸움은 더 절박한 자가 이깁니다. 잠시 후퇴할 수는 있어도 결국

정부가 승리합니다. MBC에 대한 저들의 탐욕은 공영방송 MBC,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소명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방문진 임명 집행정지' 탄원서에 온 구성원의 마음을 모읍시다. 법원의 판단도, 국민의 여론도 대놓고 무시하는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한 분노, 어렵게 되살린 MBC를 다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구성원들의 절박함을 재판부에 전달해 봅시다. 내일(7일) 오전 11시 20분, 1층 로비로 모여주십시오. 국민의 기억을 우습게 보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 하는 저들에게 MBC 구성원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똑똑히 들려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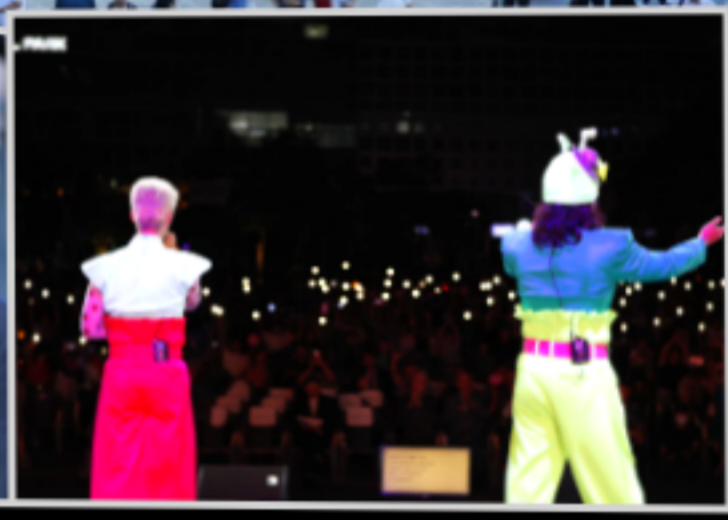
결국은 여론전입니다. MBC에 대한 기대, 국민적 지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들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며, 지지 여론을 더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함께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위원장 이호찬

지키면 더 좋은친구

MBC 힘내라 콘서트

다시보기



2004년 세상을 떠난 고 정은임 아나운서의 20주기를 기억하는 특집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정은임이라는 사람을 노동조합이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집단이 어떤 일을 기념하고 누구를 추모하는지는,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니까요. 정은임 아나운서의 삶과 방송을 되짚으면서, '방송의 공영성'이라든지 '언론인의 자세'라든지 하는 다소 오글거리는 말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잊지 말았으면 하는 이유입니다.

"시를 좋아하고, 영화를 사랑하고 타인의 아픔과 시대의 그늘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 흘린 라디오스타." 이번 라디오 특집팀이 정은임 아나운서에 대해 쓴 소개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진행한 것은 영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박찬욱, 김태용, 변영주, 류승완 등 많은 영화계 종사자들이 당시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의 영향을 받았노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시대의 그늘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 흘린 라디오스타

장수연 조합원 / 서울 편제

동시에 그는, 타인의 아픔과 시대의 그늘에 공감하는 언론인이었습니다. 정 아나운서는 <FM 영화음악> 진행 당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면 직접 오프닝 원고를 썼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한진중공업 전 노조위원장 고 김주익 열사의 이야기가 있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수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이번 특집을 제작하며 만난 한 청취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은임 아나운서는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 준 사람이다. 나의 딸들을 보며, 옛날 정은임 아나운서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들을 나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정은임 아나운서가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에서 좋은 음악 듣고, 영화 프로그램에서 유익한 정보 주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 그 너머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8월 4일은 정은임 아나운서의 스무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MBC가 풍파의 시간에 놓인 지금, 최고의 방송인이자 진정한 언론인이었던 그의 삶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임무영 윤길용 이우용 김동률 허익범 손정미...

하나같이 부정적자 방문진이 폐기물 처리장인가

이진숙이 방문진 이사라고 내리꽂은 방문진 이사들의 면면은 경악 그 자체였다. 취임 10시간 만에 마치 비밀 군사작전 하듯 온갖 법과 절차 다 짓밟으면서 임명을 강행하더니, 이런 자들을 방문진에 옥여넣으려 그랬던 것인가. 방송 분야 경력이나 전문성을 바라는 것은 사치로 보일 정도다. 극우 편향성도 정도 것이지, 인간의 기본적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 무슨 자격으로 공영방송 MBC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것인가. MBC를 일부러 망가뜨리려는 속셈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집합이다.

방문진도 공안 검사가 장악? 혐오에 찌든 '스폰서 검사'

윤석열 정권은 하다하다 방문진에까지 공안 검사 출신을 2명이나 내리꽂았다.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특검을 맡았던 허익범, 지난 2019년 검사 시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임무영이 그들이다.

특히 임무영의 실체는 충격적이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중 한 명이 바로 임무영이다. 지난 2011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는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란 책에서 자신이 20년간 검사들에게 성 접대 해온 사실을 폭로했는데, 당시 부산지검 검사였던 임무영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다. 임무영은 "다 거짓말"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당시 책에는 술자리에서 있었던 임무영의 추태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임무영의 행보는 검찰 퇴임 후가 더 가관이다. 임무영은 지난 2020년 1월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단상에 올라 "사회 전 분야가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 집회는 대표적 극우 인사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것으로, 극단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진숙과 페이스북 친구인 임무영의 게시 글들은 대부분이 편향과

차별, 혐오로 가득하다. 지난달 19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를 언급하며 "박경석 스타일로 지하철을 엮으려서 다니면서 적선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리를 고무로 감싸고 있다. 진짜 불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인어공주'라고 부른다"고 썼다. 지난달 6일 올린 "조선인은 성향상 포퓰리즘에 약하고, 좌파적 감성주의에 영합한다"는 글을 포함해 한국인 비하 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채상병 특검보다 심하다"고 적기도 했다.

임무영은 특히 2021년 이진숙이 그의 종군기자 이력에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지명 후 "우리 누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다행히 잘 되셨다", "정상적인 사람을 극우로 몰아가는 건 무식한 죄빨의 종특"이라며 적극적인 옹호 글을 올렸다.

'MBC 해체' 외치는 자가 방문진 이사라니

이진숙과 함께 MBC를 망쳤던 방송장악 부역자 윤길용과 이우용도 이진숙의 부름을 받았다. 윤길용은 김재철 사장 당시, 시사교양국장을 맡으면서 최승호 PD 등을 공개적으로 축출하고 PD수첩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다. 아이템 검열과 부당한 제작 중단이 이어졌고, 반발하는 PD들은 부당 전보시켰다. 특히 울산MBC 사장 시절에는 당시 안광환 사장에게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우용은 2011년 라디오본부장으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였던 김미화씨 퇴출을 주도했다. 김종배 평론가도 쫓아냈고, 비판적인 프로그램은 아예 폐지했다. 이어 춘천MBC 사장, MBC C&I 고문까지 맡는 등 누릴 수 있는 호사는 다 누렸다. 윤길용, 이우용 모두 국정원의 MBC 장악 시나리오를 실행하기 위해 발 벗고 뛰었던 자들이다.

그랬던 이들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정체를 알 수 없는 극우 보수단체 활동에 앞장섰고, MBC와 노조를 앞장서 매도했다. 윤길용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현재 민주노동당 연론노조원들은 흥위병이 아니라 킬링필드의 크메르루즈에 가깝다 생각한다. 안경 쓰면 죽이고 총알이 모자라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우용 역시 지난해부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안형준 사장 사퇴를 외치면서 'MBC 해체'까지 공공연히 주장했다.

이진숙도, 방문진 이사들도 인정할 수 없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가 임명된 이유도 알 길이 없다. 그는 오래전부터 MBC 민영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지난 2022년 4월 서울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그는 "관련연론은 이제 민영화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낫 뜨거운 아부를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대통령 부인으로 살아가기'란 제목의 칼럼에서 그는 "김 여사는 커리어 우먼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적인 삶을 살아왔다.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 그런 그녀에게 향간의 논란을 빌미로 관저에서 조신하게 칩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행여 지나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도대체 제대로 된 인사 하나 찾기가 힘들다. 왜 9명이 아닌 6명만 임명했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앉힌 순간부터 이 모든 비극은 예상됐다. 이런 적폐들이 이제 방문진 이사라는 완장을 찾으니, MBC에 어떤 해악을 가할지는 볼 보듯 뻔하다. 조합은 이진숙은 물론 이진숙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을 인정할 수 없다. 일반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한 줌도 되지 않는 극우 적폐들의 패악질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맞설 것이다.



박성호 방송기자협회 회장

'빌런'들의 귀환과 위험한 프로파간다

머리로 예상했던 일을 몸으로 직접 겪는 시간이 왔다. 얼마 전 참고인으로 나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상식을 뒤집고, 평정심을 흔드는 자리였다. MBC를 망가뜨리고 구성원들을 탄압한 이들, 그들 체제에서 요직을 맡으며 충실히 복무했던 이들이 이제는 방통위원장, 국회의원, 제3의 노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돌아왔다. 포지션만 다를 뿐 하나 된 목소리로 정상을 비정상적으로 되돌리려는 반동(反動)의 화음을 발산했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실행 수단부터 구축됐다. 2012년 파업이 있기 전 시사교양국과 라디오본부를 상대로 국정원의 MBC 장악 매뉴얼을 충실히 집행했던 이들이 이번에는 방문진 이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돌아왔다. 윤길용이니 이우용이니 하는 개별자들의 이름으로 볼 게 아니라 보편자로서 이들을 하나의 '체제'로 인식해야 한다. '김재철 체제'의 복원, 즉 공영방송을 권력에 헌납하고 언론자유를 짓밟았던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부활이다.

이들 '구체제'는 원 팀이다. 역사관·연론관·도덕성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후보자를 중심에 놓고, 밖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그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옹호한 여당까지, 안으로는 제3의 노동조합을 자처하는 세력들에게까지 마치 광케이블처럼 연결된 것 같다. 이진숙 청문회에서 그들이 보여준 상호 공조와 일치된 논리를 보면 공통점이 많다.

첫째, 그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사법적 결론을 간단히 무시한다. 2012년 MBC의 170일 파업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방송을 요구한 합법 파업이라고 판단했지만, 이진숙은 "경영진이 이끄는 유일한 파업"이라고 자랑스러워하며 사법부 판단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파업 참가자들을 직무와 무관한 곳으로 대거 퇴출시킨데 대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판결했지만, 이진숙은 "저희 쪽에서 보면 일 안 하고 파업을 했다고 징계한 것이지만, 저희(제3의 노조)는 일을 했다고 해서 징계를 당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제작진을 쫓아내고 진행자를 교체했던 새 방문진 이사들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정당화할 위험이 그래서 크다.

둘째, '구체제 연대'는 맥락을 생략한 채 MBC의 지난 10여 년을 '피장파장'으로 동일시한다.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에서는 서로 대량 해고와 징계를 반복했다며 일종의 '장군명군'식으로 단순화했다. 하지만 인사 '탄압'을 호소하는 제3의 노조 핵심 인사들이 과거 MBC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보도책임자였다는 사실에는 눈감았다. 물론 인사조치에 부당함을 느끼는 개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특파원 전원 소환도 꼭 그랬어야 했다,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쫓겨났던 나와 동료들에 대한 칼부림과 그들이 호소하는 '탄압'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을 수 없다. '전사'(全史)를 생략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마저 정당화될까 걱정스럽다.

셋째, 그들은 대놓고 정치적이다. 이진숙과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언론노조에 소속된 조합의 정치성을 공격한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이 불공정 보도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김장겸은 국민의힘에 가서 배지를 달았고, 이진숙, 김재철, 박용찬도 그쪽에서 출마를 시도했다. 그들이 공격한 최승호는 지금도 현장 취재를 다니고 박성제는 자영업을 하며 정치권과 담을 쌓고 있다. 반면 제3의 노조 핵심들은 청문회에서 "총선 앞두고 이종섭 대사를 취재하기 위해 MBC는 호주에 출장까지 보냈다"(문호철), "그 전에는 김정은이라고 했는데(문재인 정권 이후 사장이 바뀌고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방송 장악이 아닌가"라고 했다. MBC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려는지 감을 잡기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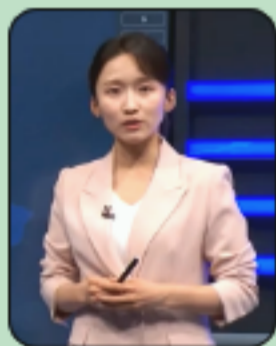
이제는 '공수 교대'할 때가 됐다느니 어쩌니 하며 들고나오는 '프로파간다'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MBC가 위험하고, 저널리즘이 위험하고,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MBC 이야기

조합에서 2017년 이후 입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가 7월 24일, 8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당초 예상했던 참가자 수를 훌쩍 뛰어넘는 150여 명의 젊은 조합원들이 참석해 조합의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재경 보도 민실위 간사의 '노동조합 역사'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MBC 탄압의 역사를 담은 영화 '공범자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호찬 본부장, 각 부문 부위원장단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MBC를 둘러싼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우려를 표하면서, MBC 장악 시도에 맞서는 조합의 대책 등을 물었다. 이호찬 본부장은 "MBC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MBC마저 장악돼선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을 더 확산시키고, 그 힘을 모아 MBC 장악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인 방통위의 위법적인 방문진 이사선임 강행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진행될 것"이라며, "전 조합원 탄원서 제출을 통해 MBC 구성원들의 의지를 법원에 전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위원장들은 조합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위기가 닥칠 시에 늘 조합과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남효정 조합원 / 서울 보도 (2018년 입사)

2017년 8월 아직 언시생이던 시절, 영화 <공범자들> 속 저 워딩 덕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8년 뒤, 관계자의 신분으로 다시 보니 그때와는 감회가 달랐습니다. 명제의 타당성은 그대로이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선배들의 울분에 찬 표정과 외치다 갈라진 목소리가 눈에 밝혀서이기도 하고, 어쩌면 저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 그렇지 모릅니다.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하는 허무함과 무기력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저연차 조합원인 제가 느끼는 현실은 비극적입니다. 회사를 망치고 언론의 가치를 몸소 깨어내던 사람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안 하거나 못 하는 현실은 과거와 비슷합니다. 외압 걱정 없이 업무 자체에만 충실할 수 있는 게 과연 언제까지 일지, 마음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좌절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배들의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됐습니다. 선배들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뎠는지 알 수 있었고, 동료들과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던 한 선배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노조는 노조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에 힘이 났습니다. 혼자 아니라 항상 노조와 동료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곳곳이 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지 않고, 휘방을 놓고, 겁을 주더라도 말합니다. 동료들도 각자의 '질문'을 잘 이어가도록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친구 MBC

이세진 조합원 / 서울 편제 (2018년 입사)

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우리 회사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증을 잔뜩 안고 그 이야기를 찾아서 골든마우스홀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10여 명의 동기들과 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에 잔뜩 상기된 것도 잠시, 영화 <공범자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MBC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영화 <공범자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MBC의 7년 차 PD로서 보는 <공범자들>은 이전에 봤던 것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얼굴들... 바로 내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선배들이 회사 로비에서, 거리에서 울부짖으며 언론정상화를 외쳤던 모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10여 년 전 MBC, KBS, YTN에서 벌어진 일들이 단순히 언론계의 이야기를 넘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화 상영 이후, 노동조합의 각 부문 부위원장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부위원장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평소에 갖고 있던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10여 년 전에 회사에서 겪었던 일들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일부 선배들은 유머를 섞어 이야기 하였지만 결코 웃기지만은 않은, 곱씹으면 슬퍼지는 그런 경험담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기록된 과거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견뎌온 선배들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우리 회사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게 이번 조합의 행사는 회사의 과거와 현재를 알려주었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을 주었습니다. 유익하고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2024 여름캠프 '잘 놀면 다행이야
잘 다녀왔어요 ~♡♡♡

